

목어

TV 속 종교 편식



도수 정업도량 회주

불교인인 나의 눈으로 보아서 인지는 몰라도 요즘 TV를 보면 두드러진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정 타종교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심지어 목걸이를 한 출연자들이 부처를 닮은 것을 비롯해서...

이런 분위기는 마치 모든 TV가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에 나선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특정종교를 가까이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출연자들이 TV출연을 더욱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TV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D와 기자, 작가, 리포터, 심지어 촬영기사까지도 TV화면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석가모니 부처님을 '리얼리스트'라고도 한다. 서양의 종교 철학자 사이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처님의 첫 가르침, 사성제와 팔정도. 생의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 길과 방법을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뿌리 두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어느 정도 묵과해 주는 관용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민심은 서양 중세 마키아벨리의 시대 민심보다 크게 진화해서 쉽게 속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려니, 속는 척 할 뿐이다. 노 후보는 3김 시대의 화법 하나를 무심히 배워 구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편 설법'에 재미붙여왔던 그 한문과는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거칠면서도 속이 곧잘 들여다보이는 언행을 구사하는 그를 유권자들은 '가법기'는 하나 오히려 솔직한 인물'로 평가한다.

폭로·인신공격 난무... '正語지수' 바닥

이회창 후보의 경우,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한 아들들의 병역 문제 등 몇 가지 의혹이 그의 정어(正語)에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의심케 하고 있다. 아마 16대 대선에서 가장 큰 거짓 변을 제법 써 먹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방편 설법'은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방편이지, 세속인의 것이 되고 보면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거짓말'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의 군주론을 빌려 보면, '인간이란 단순한 동물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기 쉽다. 그러므로 속이고자 하는 자는 속일 상대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3김 가운데 그 한 분, 그리고 노 후보를 유독 '거짓말 잘 하는 정치인' 쪽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서로 간 '오십보 백보' 여서 경중 가리가 어렵고 국민들도 이를

을 스스로의 기반이라 믿고 있는 이 후보가 부신과 겸비에서 격돌하며 쏟아내고 있는 말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지역주의 아닌 것을 찾기 어렵다. 도청, 각종비리, 정치자금 등 어느 한편은 분명 거짓말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의혹들이 이 시점에서 돌출하고 있는 현실도 어지럽다. 선거풍토가 어떻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만약 '정어 지수(正語指數)'라는 것을 만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라도 16대 대선의 정어지수는 바닥권이다. 지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가운데

바닥권은 역설적이게도 희망과 연결돼 있다. 추가지수나 경제가 '바닥'을 쳤다 할 때 사람들은 이제는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희망을 갖는다. 한국 정치에도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바로 지금부터라도 정어지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후보, 정어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려는 후보가 있다면 민심은 그 쪽으로 기울 것이 아닐까. 아무리 '거짓말'이 '정치'라는 불가피한 영역 속에서의 필요악이라 해도 미래 정치는 정어지수로 계량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 그 팔정도가운데 어느 하나의 길만이 유독 그 경지가 높을 수는 없다. 수순, 즉 물의 높이는 함께 오르내리는 이치와 같아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진실된 성질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공력을 단련해 왔을 것이

불자의 생각

운세 자주 보십니까? 불자들은 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볼까? 불교신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35명(70%)이 가끔 본다. 15명(30%)이 안 본다고 응답했다. 각종 매체 운세 가끔 본다 70%

이렇게 들었다 변호사 윤리교육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변호사연수규칙에 '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변호사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예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도 활동하게 되는 신참 변호사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까지 연간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릇된 윤리의식에 피해 국민 없길 기울지 않는 바른 법 수행 준수해야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변호사협회의 자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등을 두드려 줄만하다. 법을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외국 변호사 자격 소

살아, 긴 부리를 돌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법을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외국 변호사 자격 소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성리실베타운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96실(2인 기준), 동층수: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평생입주, 입주금, 현납입주.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TDP神燈-생명의 빛!!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수퍼원적외선 등 방사파장을 신체에 동시 투사하여 인체의 면역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동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열에 약한 병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의료기입니다.